

전남도, 국방우주·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박차

고흥서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
우주항공·소재부품산업 등 연계
방산혁신 클러스터 유치 등 추진
“K-방산 새 거점 도약 전략 마련”

전라남도가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항공산업 등과 연계한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에 나선다.

전남도는 23일 고흥 썬밸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어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최근 러·우 전쟁,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우주와 인공지능(AI), 드론 등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한 가운데 고흥의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항공산업과 광양만권의 소재부품산업 특화 강점을 연계한 방위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순천에서 첫 방위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이어 이날 고흥에서 방위산업 전문가, 지역 방산기업, 유관기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신 방위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국방 우주



전남도는 23일 고흥 썬밸리 리조트에서 2025 전남 방위산업 육성 심포지엄을 열고 전남 방위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국방우주 분야 역할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 제공

강국의 시작, 우주 방위 산업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이 ‘첨단 방위산업의 미래와 지역 전략’을 주제로, 방위산업 지방 분권화와 지역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서는 윤선중 국방기술품질원 박사가 ‘국방우주 품질관리 방안’을 주제로 국방우주 분야 표준체계를 소개하고, 기술역량 확보가 방위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임을 역설했다.

또한 전남도에서 ‘전남 방위산업의 현

황 및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K-방산의 새로운 거점 도약’을 목표로 한 4대 추진 전략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전략은 순천, 고흥을 중심으로 한 국비 245억 원 규모의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방위사업청) 유치다. 이를 위해 전

광주시,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 단속

미등록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광주광역시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한 달간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달 1일~이달 30일까지 실시된 동물등록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다.

집중단속은 지역 내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주요 출입지역에서 실시된다.

적발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보호법은 동물등록 의무 위반에 대해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 이상 개는 모두 등록 대상이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자치구에서 지정한 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물등록이후 반려동물의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등록된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은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등록대행업체 조회·소유자 변경신고 서비스’와 정부24의 ‘소유자변경 신고 서비스(소유자 변경,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되찾음, 사망, 중성화에 한함)’를 이용하면 된다.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은 올해 2차례 운영된다. 오는 9~10월 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되고, 11월 한 달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정성아 기자

광주 AI 융합 혁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추진

AI사업단, ‘AI+X 지역산업’ 실시 모빌리티·에너지·헬스케어 분야 2개 선정·과제당 1억2천만원 지원

광주대표산업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광주광역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사업단)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연계,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5년 AI+X 지역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7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주 AI 전문기업이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해 AI 기반 신제품·서비스·솔루션을 개발

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AI사업단은 인공지능 융합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AI 산업융합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존 산업의 혁신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2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과제당 최대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광주 지역에 본사, 지사, 연구소를 둔 AI 전문기업으로, △반도체 △데이터산업 △모빌리티 △문화콘텐츠 △에너지 △메디헬스케어 △광융합·가전 △스마트부리 등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7월7일까지며,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지원 과제가 선정된다.

선정된 기업과 기관은 광주 첨단 3지구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집적단지) 내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 GPU 기반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활용해 AI 융합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신제품·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은 광주의 대표 산업과 인공지능을 융합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AI 기업과 지역 기업·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광주가 AI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 할인판매

인터파크·네이버서 최대 30% 행사장 사용페이백 쿠폰도 제공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2025 국제농업박람회 사전예매 입장권을 인터파크와 네이버를 통해 최대 30% 할인 판매하고,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페이백 쿠폰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산포면 전남농업기술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미래 농업의 비전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에는 25개국 380여 기업·단체가 참여해 농업 관련 최신 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우수 농산물 수출 상담과 다양한 전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

다.

온라인 구매는 네이버나 인터파크에 국제농업박람회를 검색해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구입할 수 있다.

사전예매 가격은 일반권 7000원(현장판매 1만원), 청소년권 6000원(7000원), 어린이권 2000원(3000원)으로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원 상당의 쿠폰(어린이 제외)도 제공된다.

또한 관람객의 전남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전남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입장권 할인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박람회 참여와 전남의 다양한 관광 명소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입장권 예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사무국(061-339-9221)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중소 소비재 기업 유럽시장 진출 기반 마련

파리 코리아 엑스포서 인기몰이 10개 기업 315만 달러 수출협약 김·떡·한복 등 1351만 달러 상담

전라남도는 ‘2025 파리 코리아 엑스포(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315만 달러 수출협약, 1351만 달러 수출상담을 하는 등 전남 중소 소비재 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박람회가 유럽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스에서 케이(K)-산업을 직접 알릴 수 있는 글로벌 교류의 장이자, 최근 프랑스 내 확산 중인 한류 열풍을 활용해 전남 소비재의 수출 확장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B2B와 B2C 복합형 전시회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참가했다.

지난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박람회에는 전남 10개 사를 포함해 전국 144개 유망 소비재 기업이 참가했다. 유럽 168개 사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해 활발한 교류가 이뤄졌다. 전남 참가기업은 총 146건의 수출상담을 진행, 이 가운데 약 315만6000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남 기업들은 김, 떡, 한복, 화장품 등 유럽 소비자 트렌드에 부합하는 다양한 제품을 전시해 현지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해조류化粧품을 출품한 ㈜이노플렉스가 151만 달러 △천연염색 한복을 선보인 (사)한국천연염색 숨이 139만 6000 달러 △떡류 및 떡볶이 소스를 출품한 농업회사법인 ㈜푸드파파F&B가 20

만 달러 △고흥 나물 간편식을 선보인 농업회사법인 ㈜담우가 5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했다. 이외에도 △㈜가리미(김) △씨엔씨코스메틱(화장품) △맛나푸드㈜(김) △에스에이치엔코(마이크로니들 패치·치약) △수레인보우협동조합(식혜) △완도물산영어조합법인(김) 등 전남 참가기업은 총 1351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 상담 실적을 올리며 유럽 시장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전남의 유망 소비재 기업이 케이-라이프스타일의 매력을 유럽 현지에 직접 알리고,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유럽 시장을 포함한 해외판로 개척을 지속해서 확대해 지역 수출 저변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